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Library Policy to Strengthen the Reading Abilit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이 정 연 (Jungyeoun Lee)**

초 록

본 연구는 학령기에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독서 및 도서관 이용과 요구사항을 파악해 보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대체자료 제작 및 대체자료통합목록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정책과는 다르게 장애 아동·청소년은 주로 종이책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80%가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도서관 중심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영역과 학령별 장서 큐레이션을 통한 독서문화 향유 기반 구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멀티미디어 장서의 국제표준화 개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협력, 특수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 장서,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 학생들과의 연계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reading and library use and requirements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in school age,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n library policy, centered on the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Unlike the library policy centered on the crea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ataloging system for alternative materials, children and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mainly use paper books, and 80% of them hardly use the library. This study established a system centered on the special school library and propos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enjoying reading culture through curation of books by disability type and developmental age. In addi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multimedia collections,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and the expansion of librarian, collections, and budgets of special school libraries, linkage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classes of general schools was suggested.

키워드: 도서관 정책, 특수학교도서관, 대체자료, 독서문화 프로그램,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읽기쉬운책, 데이터, 학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Disabilitie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With Disability, Easy to Read

* 본 연구는 2021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의 내용 일부를 축약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yonlee@joongbu.ac.kr)

논문접수일자 : 2022년 2월 2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2월 25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3월 10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279-299,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279>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령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향유와 정보활용능력 향상은 대부분 학교 내 교육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 연계된 독서매체 접근과 관련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체 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정보 및 독서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적 특성이 상이하며, 정보에 접근하고 향유하는 방법도 다르다. 이들에 대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활동은 특수교육에서 주로 다루고 있으나 자료와 매체에 관련한 연구와 도서관 정보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김지민, 2014; 염지애, 김동복, 2016)이며, 문헌정보학의 연구와 더불어 도서관 현장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매체뿐 아니라 콘텐츠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콘텐츠 제작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도서관 운영(손지영, 박현옥, 이정은, 2013)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도서관법」에서 장애인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에게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책무가 강화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독서문화 향유에 대한 역할을 각 장애영역별 복지관 혹은 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07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개소되어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관련 정책 개발 및 대체 자료의 확충과 디지털

웹 전송 및 제공, 관련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공공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서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장애 아동·청소년 시기에 충분히 학습되고 경험되어야 할 독서역량을 위하여 학교안과 밖에서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가 실제로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장애유형별 독서매체 접근과 독서에 대한 흥미,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실제로 학교 교육과 도서관에서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독서역량 강화와 독서문화 향유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장애인의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대체자료 제작과 지원,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국가대체자료 종합목록시스템, 공유시스템, 대체자료관리시스템에 대한 도서관협력과 공유에 대한 사항이 매년 보고서 형태로 간행되고 있으며(국립장애인도서관, 2020a, 2020b), 장애인들의 독서활동실태조사도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0c). 정보접근에 가장 취약한 장애유형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제작에서 출발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관련한 지침서(국립장애인도서관, 2014)가 개발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이용 쉬운책 개발(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지침서도 개발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전 연령대의 장애인을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정책이나 서비스를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조사한 특수학교도서관

관의 장서 및 정보서비스 현황과 사서인력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한편 2019년 교육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175개 특수학교 학교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를 한 장보성(2019)의 연구에서 특수학교도서관의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장애영역별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장서량은 시각장애의 경우 평균 9,544권, 청각장애의 경우 137,492권, 지적장애는 5,805권이 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대체자료가 제작 보급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지적장애)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대체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 학교도서관과 비교한 특수학교도서관의 평균 장서량은 국립이 67.4%, 공립은 47.9%, 사립은 44.5% 수준의 장서량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 현황은 일반 학교도서관과 비교하여 특수학교도서관은 설립 학교 유형별로 국립은 39%, 공립은 80.4%, 사립은 43.8% 수준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었다. 더불어 전담 직원의 경우에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전담직원이 없는 학교도서관은 총 128개교로 73%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근거한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 혹은 대체자료 제작과 사서 인력의 부족 및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었고, 학령기 연령대인 장애 아동·청소년¹⁾을 위한 장애유형별²⁾로 이용하고 있는 대체자료 매체, 선호하는 자료 유형,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인

식도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장애유형별 독서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 유형별 서비스의 경험 유무 및 희망하는 도서관서비스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독서문화 환경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도서관 정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국립장애인도서관, 2019; 2020d)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및 웹사이트 조사 분석을 통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특수학교도서관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셋째,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장애유형별 독서활동 현황과 도서관 이용 현황 및 전자책과 대체자료의 이용,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경험 및 희망하는 대체자료, 도서관 서비스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할과 특수학교도서관 중심의 추진체계와 독서진흥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본 연구의 장애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학령 전기(아동기), 학령 후기(청소년기)로 구분하였다.
2)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장애유형을 대표적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특징 및 독서활동 현황

2.1 장애 아동·청소년의 분포 현황

본 연구대상인 장애 아동·청소년은 전국의 총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로 추산할 수 있는데 약 1.7%이며,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교육부, 2021a).

특수교육기관의 특수학교³⁾와 일반학교 특수학급⁴⁾에서 학령기 과정의 학생현황 분포를 2021

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통계자료 <표 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2021년 현재 187개 학교, 특수학급 수는 12,042개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본 연구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재학생 44,814명, 중학교 20,212명, 고등학교 20,169명, 전공과⁵⁾ 학생은 5,393명으로 총 90,588명⁶⁾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시각, 청각, 발달 장애 학생 수를 추산해 보면 <표 2>와 같은데, 2021년 현재 총 98,154명⁷⁾ 중에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은 1,826명(약 1.9%),

<표 1>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A)	'21(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2,734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366	403	578	680	742	656	549	582	532	439	369	-70
	유치원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661
	초등학교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1,609
	중학교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1,072
	고등학교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486
전공과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2	
특수학교 수	155	156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5	
특수학급 수	8,415	8,927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381	
교원 수*	15,934	16,727	17,446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1,349	

* 국·공·사립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출처) 교육부, 2021b, 15.

- 3) “특수교육기관”이라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4)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5) 특수학교전공과: 특수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임.
- 6) 장애영아와 유치원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됨.
- 7) 장애영아와 유치원을 포함한 통계표 이다.

〈표 2〉 2021년 특수교육 주요현황

(단위 명, 교, 학급)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7,027	54,266	16,600	261	98,154
장애영역 별	시각장애	1,130	234	460	2	1,826
	청각장애	605	689	1,723	9	3,026
	지적장애	14,356	32,537	4,883	12	51,788
	지체장애	3,826	3,425	2,376	68	9,695
	정서·행동장애	79	1,199	596	-	1,874
	자폐성장애	6,247	8,004	960	4	15,215
	의사소통장애	159	1,380	911	-	2,450
	학습장애	19	705	390	-	1,114
	간강장애	7	105	1,687	-	1,799
	발달지체	599	5,988	2,614	166	9,367
계		27,027	54,266	16,600	261	98,154
학생수	장애영아	108	-	-	261	369
	유치원	927	4,444	1,826	-	7,197
	초등학교	8,704	28,484	7,626	-	44,814
	중학교	5,750	10,755	3,707	-	20,212
	고등학교	6,365	10,363	3,441	-	20,169
	전공과	5,173	220	-	-	5,393
계		27,027	54,266	16,600	261	98,154
학교 및 센터 수		187	11,709		199	12,095
학급 수		5,114	12,042	15,772	59	32,987
특수학교(급)교원 수*		9,501	12,718	-	1,275	23,494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4,614	8,880	269	-	13,763

* 국·공·사립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출처) 교육부, 2021b, 21.

청각 장애의 경우 3,026명(약 3%), 발달 장애⁸⁾는 지적장애 51,788명(약 53%)을 포함하여 지체장애(9,695), 정서 행동장애(1,874), 자폐성장애(15,215), 의사소통장애(2,450), 학습장애(1,114), 발달지체(9,367)⁹⁾를 합한 총 91,503명(93%)이다. 발달장애 영역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타 장애영역에 비하여 높음을 알 수 있다.

2.2 장애 아동·청소년 도서관 이용 및 독서활동 현황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20년 12월에 발표한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활동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도서관 이용 현황 및 독서활동과 전자책 및 대체자료 이용 실태, 독서문화프

- 8) 발달장애는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반적 발달 지연(global developmental delay)은 대운동(gross motor), 미세운동(fine motor)과 인지, 언어, 사회성과 일상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로 정의한다.
- 9) 발달지체는 만 9세 이전의 장애진단이 모호하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의미한다. 발달지체는 만 9세에 재선정 받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재선정된다.

로그램 참여 경험 등을 조사한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2.2.1 조사 대상 및 연구 방법: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

전국 만 7세 이상 시각, 청각, 발달, 지체장애인 총 3,545명 대상으로 지역별로 추출하여 전국단위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의 연령대별 학령 전기와 학령 후기의 총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출해보니 다음 <표 3>과 같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총 320명을 대상으로 학령 전기(아동기) 140명, 학령 후기(청소년기)는 180

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2.2.2 장애아동 및 청소년 이용 독서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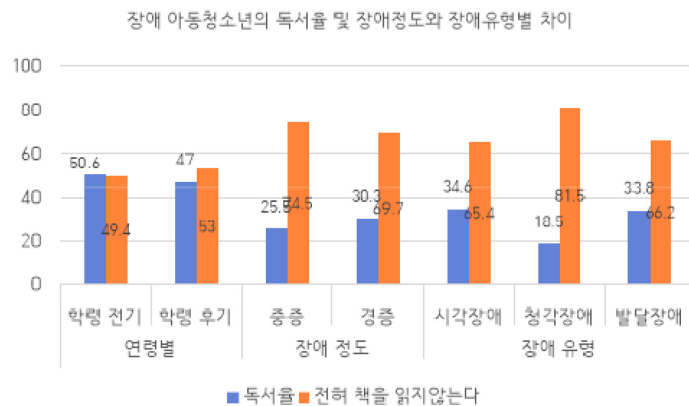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율은 학령 전기(아동기)에는 50.6%, 학령 후기(청소년기)에는 47%이며, 전혀 책을 읽지 않는 비율도 거의 50%를 차지한다. 장애 정도와 장애유형별로 독서율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발달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증장애가 중증장애보다 독서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전혀 책을 읽지 않는다는 비중이 81.5%로 책과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1년 이내에 독서를 경험한 장애 아동·청소년

<표 3> 조사대상 장애 아동·청소년(학령 전후기)

(단위: 명)

장애유형	연령대	
	학령전기	학령후기
시각장애	27	45
청각장애	39	47
발달장애	18	41
총(320명)	140	180



<그림 1>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율 및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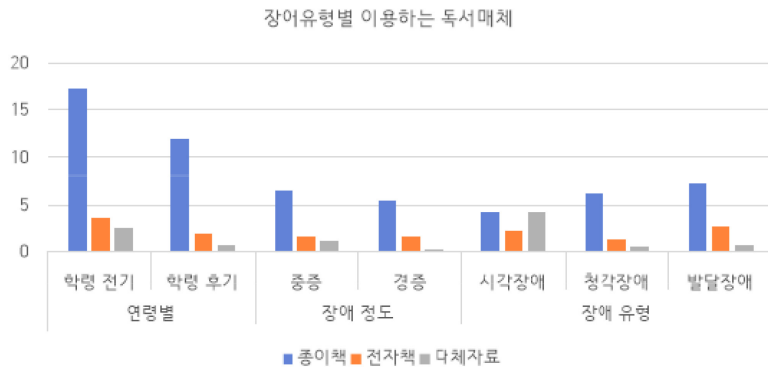
년의 연간 독서량은 평균 19.35권이며, 종이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평균 14.5권, 전자책은 2.8권, 대체자료는 1.7권으로 나타났다. <그림 2>와 같이 연령별, 장애정도에 구분 없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독서매체는 종이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종이책과 대체자료를 유사한 비율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와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대체자료의 이용율이 낮고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전자책의 이용이 다소 높음이 나타났다.

2.2.3 도서관 이용 경험

지난 1년간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9%이며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는 94.1%로 대부분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 아동·청소년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20.3%였으며 학령 전기는 21%, 학령 후기는 19.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79.7%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관의 유형은 <표 4>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기에는 37.3%로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학령 후기에는 학교도서관이 43.2%의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 후기에 접어들수록 학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장애유형별 이용하는 독서매체

<표 4> 최근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관

(단위, %)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초중고등학교도서관	기타	
연령별	학령 전기	37.3	20.7	2.4	29.3	0.3
	학령 후기	18.1	23.2	8.8	43.2	6.7
	평균	27.7	21.9	5.6	36.2	3.6

그러나 약 80%에 달하는 장애 아동·청소년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도서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장애 아동·청소년 독서관련 정책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2.4 참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지난 1년간 참여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은 <표 5>와 같이 학교도서관(초중고등학교도서관)이 4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이 36.25%, 작은도서관 17.25%, 장애인도서관 6.75%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유형은 <표 6>과

같이 독후활동 48%, 독서활동 45.9%, 독서행사 24.85%, 독서교육 14.8%, 독서치유 14.6%로 나타났다. 연령층이 낮은 학령 전기 아동은 독서활동, 독후활동, 독서치유, 독서행사, 독서교육 순이었으며, 청소년 층은 독후활동, 독서활동, 독서행사, 독서교육, 독서치유 순으로 나타났다. 학령 전후기별 참여 독서문화프로그램 유형의 우선순위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림 3>과 같이 참여 독서문화프로그램별 막대그래프를 학령 전후기 및 평균 참여프로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실선 그래프는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독후활동과 독서행사였으며, 독서활동, 독서치유, 독서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독서는 다양한 독서관련 활동(독후활동 및 독서행사 등)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인 경우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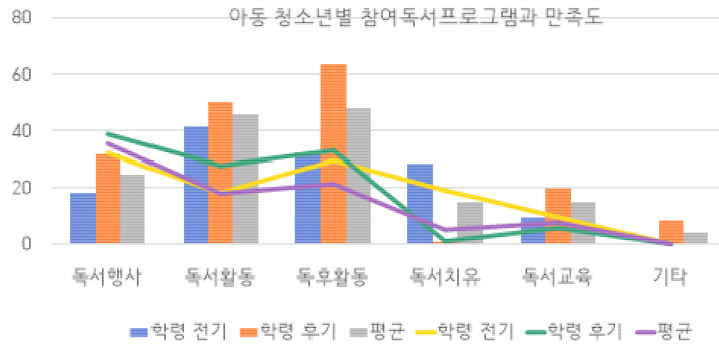
<표 5> 참여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기관

구분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초중고등학교도서관	기타
연령별	학령 전기	42.6	20.1	0	37.3	0
	학령 후기	29.9	14.4	13.5	49.8	5.9
	평균	36.25	17.25	6.75	43.55	2.95

<표 6> 참여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유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단위: %)

구분		독서행사	독서활동	독후활동	독서치유	독서교육	기타
연령별	학령 전기	18.2	41.7	32.3	28.7	9.6	0
	학령 후기	31.5	50.1	63.7	0.5	20	8.3
	평균	24.85	45.9	48.0	14.6	14.8	4.15
만족도	학령 전기	32.2	18.2	29.6	19.1	9.6	0.0
	학령 후기	38.9	27.8	33.1	1	5.7	0
	평균	35.55	18	21.35	5.05	7.65	0



〈그림 3〉 장애 아동·청소년의 참여독서문화프로그램과 만족도

2.2.5 대체자료 이용경험 및 필요 대체자료

1) 이용해 본 대체자료

장애 아동·청소년의 대체자료의 이용 경험에 있는 자료매체는 장애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표 7〉 참조).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녹음도서, 점자, 데이지, 큰글자 순이었고, 청각장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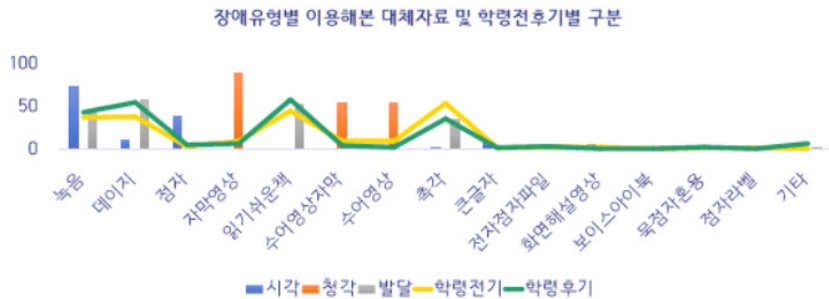
자막영상, 수어영상자막, 수어영상이었다.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데이지도서, 읽기쉬운책, 녹음도서, 촉각도서 순이었다.

학령전후기별 대체자료의 이용경험의 차이는 〈그림 4〉와 같이 큰 차이점은 없지만 학령후기로 갈수록 데이지자료와 읽기쉬운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이용해본 대체자료(장애유형별, 학령 전후기별)

(대체자료 이용자, 단위 %)

대체자료	시각	청각	발달	학령전기	학령후기
녹음	73	0	43.9	36.5	42.6
데이지	10.3	0	56.7	37.4	54.1
점자	39.1	0	0	2.5	4.5
자막영상	0	89.1	0	8.9	5.8
읽기쉬운책	0	0	52.6	44.1	57.3
수어영상자막	0	53.6	0	8.9	3.7
수어영상	0	53.3	0	8.9	1.6
촉각	1	0	35.1	53	35
큰글자	8.7	0	0	0.9	1.1
전자점자파일	5.6	0	0	2.1	2.6
화면해설영상	5.5	0	0	1.8	0
보이스아이북	1.9	0	0	0	0
목점자혼용	1.4	0	0	0.9	1.8
점자라벨	0.1	0	0	0.9	0
기타	0.9	0	1.2	0	5.9



〈그림 4〉 장애유형별 이용해 본 대체자료 및 학령전후기별 구분

2) 장애 유형별 아동·청소년 필요한 대체 자료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이 필요한 대체자료는 장애 유형별로 학령 전후 기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표 8>과 같이 학령 전기에 데 이지도서를 가장 선호하며, 녹음도서, 점자라벨 도서, 촉각도서를 선호한다. 학령 후기는 데 이지 도서와 녹음도서, 점자도서, 점자라벨, 목점자혼용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연령층 인 경우에는 한글 습득 기간이기 때문에 점자라 는 새로운 언어체계로 된 대체자료 보다는 녹음 과 데이지도서 등 들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

와 촉각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도서 형태인 점자라벨과 촉각도서를 선호함을 보여준 다. 반면 언어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 중인 학령 후기의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데이지, 녹음자료 뿐 아니라 점자로 된 형태의 책들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체자료 제작과 개발정책 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현황을 반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표 9>와 같이 학령전 기에는 수어영상자료를 선호하고, 언어 습득이 어느 정도 된 학령 후기에는 자막영상과 수어 영상자막을 수어영상만 있는 경우보다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시각장애 아동·청소년 필요한 대체자료

(대체자료이용자 시각장애, 단위: %)

시각장애	녹음	점자	데이지	점자라벨	목점자혼용	촉각
학령전기	38.7	0	40.5	12.1	0	8.6
학령후기	23	12.6	34.1	12.6	17.7	0

〈표 9〉 청각장애 아동·청소년 필요한 대체자료

(대체자료이용자 청각장애, 단위: %)

청각장애	자막영상	수어영상자막	수어영상
학령전기	0	0	100
학령후기	70.2	10.4	19.5

발달장애의 경우에, <표 10>과 같이 데이지 도서의 이용율이 학령전후기에 걸쳐 가장 높았으며, 학령전기에는 녹음도서, 촉각도서, 읽기 쉬운 책이었다. 반면 학령 후기에는 촉각도서, 녹음도서, 읽기쉬운 책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시각과 발달장애 모두 데이지 자료와 녹음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지 자료는 전자점자나 음성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며 장, 절, 검색 등 페이지 및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청각장애의 경우에는 수어영상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장애 유형별 아동·청소년의 독서보조기기 이용경험

독서보조기기의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94.7%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5.4%였다. 이용해 본 독서보조기기 중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확대경, 휴대용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데이지플레이어 등이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음성증폭장치(공용보청)과 화상전화기,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어플리케이션, 골드 헤드셋, 신호경보장치 등이었다.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터치 화면과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2.3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 아동·청소년 도서관 정책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정책은 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¹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의 대체자료 제작과 종합목록시스템 구축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물로 국립장애인도서관,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실, 사립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 목록 및 원문자료에 대한 통합데이터베이스인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¹¹⁾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에서 서비스되어 장애인 이용자들은 원하는 대체자료가 어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간의 상호대차는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은 주로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장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특수학교도서관과 유관 기관은 미비한데, 서울맹학교도서관이 유일하며, 국립특수교육원,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표 10>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필요한 대체자료

(대체자료이용자 발달장애, 단위: %)

발달장애	데이지	녹음	촉각	읽기쉬운책	기타
학령전기	54.4	18.1	17.5	9.9	0
학령후기	22.9	19.8	37.2	13.2	6.9

10) 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자료실이 48개관, 장애인 코너는 125개관으로 총 173개관이 공공도서관에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39개관, 청각장애인도서관은 5개관이 있다. 한편 특수학교도서관은 94개관이 있다.

11) 2020년 12월말 기준 목록데이터는 425,403건이며 이 중 원문데이터는 155,631건이 구축되어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은 출판사로부터 디지털 납본제도, 소리책 나눔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출판사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아 대체자료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하고 국가 대체자료공유시스템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에서 조사분석한 결과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은 대체자료 뿐 아니라 일반 장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장애 유형별 발달 단계에 따른 장서 개발은 매우 시급하다. 대체자료 제작의 저작권 해결을 출판사로부터 기증에 의존하는 것은 장애 아동·청소년기에 제공되어야 할 적절한 장서가 선정되어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한 장서를 선정하여 출판사에게도 적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수학교도서관을 통해 일반 장서를 구입하고 더불어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장서개발을 해야 한다. 더불어 디지털매체의 발전으로 비장애인들도 다양한 전자매체인 전자책, 녹음도서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EPub 등의 국제 표준화 부분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강화시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자적으로 대체자료 제작이 용이하게 되어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독서매체 접근이 될 것이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정책은 2011년부터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의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발달, 지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주로 공공도서관과 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와의 연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에 진행되었던 50개 기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장

애 유형별 참여 건수는 시각 장애 7건, 청각 장애 3건, 지체장애 6건, 발달 장애 34건 등 발달 장애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20d). 2020년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은 관련 자료를 대체자료로 매체 변환과 독후자료를 참가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유튜브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참가 대상은 대부분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발달장애 영역에서 4개 기관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2017년부터는 특수학급에 전문독서전문가를 파견하여 점자 및 음성도서, 수어영상도서, 읽기쉬운도서 등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맞춤형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재 발달장애 고등학생들 대상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9년에는 서울 소재 시각, 청각, 발달 장애 초, 중, 고등학생들로 특수학교를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였다. 2020년에는 청각, 발달 장애 6개교 60명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대체자료 종합목록 검색과 이용에 관한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앞으로 장서개발과 더불어 특수학교도서관의 장서공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발달장애 유형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으므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전문가 파견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독서역량 강화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개선 방안

앞에서 살펴본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역량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적용한 지속적인 도서관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특수학교도서관 중심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 유형별, 수준별, 상황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림 5>와 같이 특수학교도서관 중심의 장애 아동·청소년 독서진흥정책 추진체계를 제시하여 장애 아동·청소년 이용자중심의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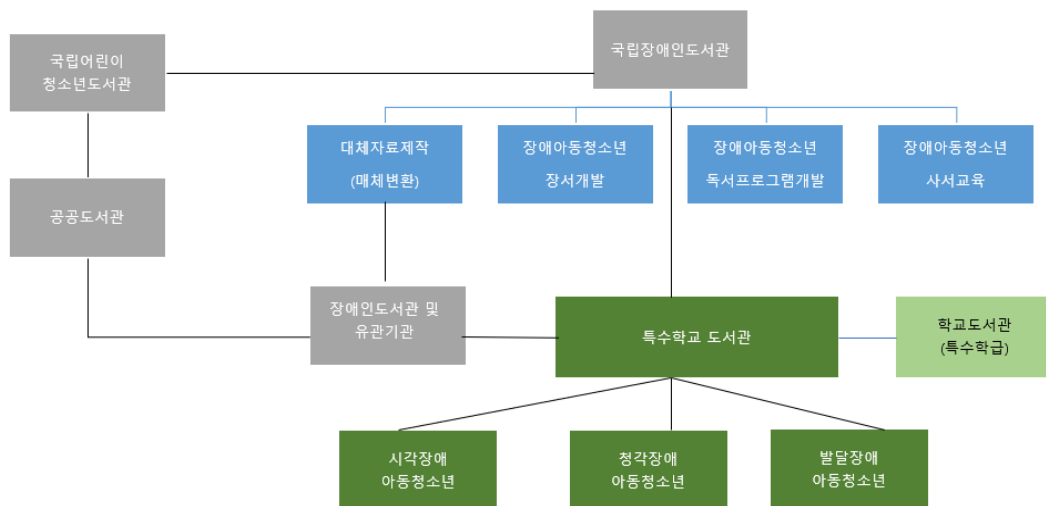
첫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특수학교도서관 중심의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장애 영역별 학교를 중심으로 시각 장

애 아동·청소년, 청각 장애 아동·청소년, 발달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도서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대체자료 제작 및 매체변환, 장서개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 사서 지원 및 교육 등의 업무를 개발하여 특수학교도서관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대체자료의 소장 여부와 검색 및 이용을 위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대체자료 제작과 장애인도서관과의 협력체인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특수학교도서관의 대체자료 목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과 통합하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어린이 청소년 장서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장애 아동·청소년들에



<그림 5> 특수학교도서관 중심의 장애 아동·청소년 독서진흥 정책 추진체계

게 일반장서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필요한 대체 자료목록을 통합하여 연동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3.1 특수학교도서관 중심의 추진체계 확립

장애인들의 독서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국립장애인도서관, 2020c),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임을 밝혀졌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80%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진흥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가장 편리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학교 학생에 비하여 특수학교 학생의 독서율이 현저히 낮으며, 독서기반 시설인 특수학교도서관이 장서, 예산, 인력 전반에 걸쳐서 매우 낮은 형편임이 밝혀졌다. 앞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진흥정책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책을 확장시켜야 함을 제안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특수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서, 예산, 사서인력 확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장애 영역별로 설립되어 있는 특수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진흥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지연(2017)의 연구에서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도서관의 장애학생을 위하여 사서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을 제언한 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초·중등학교와 관련한 정부부처인 교육부와와의 부처간 협의를 도

모해 나가야 한다.

3.2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장서 큐레이션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대체자료는 아동·청소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한 대체자료이다. 또한 대체자료 제작에 대한 저작권을 가장 우선시하여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주제에 근거하여 대체자료 제작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용자의 신청에 근거한 대체자료 제작 서비스가 있으나 대부분 교과 학습용 자료이며, 문화 향유를 위한 아동·청소년 장서 개발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독서흥미도 장애 아동·청소년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에게 맞춤형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3.2.1 장애영역별 장서선정 전문가 그룹 구성

시각, 청각, 발달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독서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 선정과 연령별, 단계별 정서적, 상황별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장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장애영역별 장서 선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장서 큐레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장서 선정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상황별, 내용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서 큐레이션 전문가 집단의 구성과 상황별 장서 큐레이션과 시각, 청각, 발달장애 별로 추천 목록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3.2.2 K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회의)의 (장애아동도서선정위원회)와 협력

전세계에서 아동·청소년도서를 위한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및 연구자, 사서 등이 아동·청소년도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된 비영리단체인 I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회: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의 한국지부(KBBY: Korean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장애아동도서선정위원회¹²⁾와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IBBY는 2005년부터 캐나다 토론토 도서관에서 주관하여 'IBBY 장애아동을 위한 좋은 책 목록'을 선정하고 있다. KBBY도 한국 아동도서를 심사,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는데 아래에 제시한 세 범주에 타당한 작품인지,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 책인지, 동시에 '모두를 위한 책(Books for Everyone)'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한국 후보작을 선정하고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3.3 대체자료 디지털 표준 변환 및 신규 생산

장애인들을 위한 장서는 장애유형별로 녹음도서나 데이지도서 및 전자점자 등으로 매체를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디지털납본제도, 소리책 나눔터, 출판사 기증 등의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서선정과

매체 변환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손쉬운 매체변환을 위하여 전세계적인 W3C 표준으로 제정된 전자책 EPub 포맷이 한국의 전자책 시장에도 적용되어 DAISY로 손쉽게 변환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제안을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가주도형 장애인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웨덴은 TPB(점자 및 녹음도서센터)에서 명칭을 MTM(스웨덴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센터(MTM: Swedish Agency for Accessible Media))으로 변경하고, 일반 장서의 매체변환에 기술적인 다각적 방법과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1976년 '모두에게 문화'이라는 스웨덴 의회위원회의 로드맵에 TPB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독서장애인들에게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하여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미디어¹³⁾를 개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다(이정연, 2010).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그림 6>과 같이 애플서가(APPLE SHELF)를 만들어서 다양한 매체의 장서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애플 서가는 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애 아동들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매체의 미디어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MTM은 IFLA에서 스웨덴 애플서가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 발표하였는데, 국가단위에서는 서비스의 정체성 확립과 개발을 수행하고 실행

12) <http://www.kbby.org/>

13)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여 등록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책의 유형은 녹음도서, 점자도서, E-textbooks, 수어영상도서를 대출하고 있다. 또한 판매도 하는데 점자책, 녹음도서 읽기 쉬운책, 읽기 쉬운 신문, 촉각그림책, 점자캘린더 등이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녹음 신문 구독, 점자 정기간행물 구독, 컴퓨터로 이용하는 녹음도서 프로그램, 모바일 및 태블릿 앱 개발, 다양한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컨퍼런스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6〉 스웨덴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애플 서가

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단위에서 기획과 교육을 수행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Kronkvist, 2014).

일본 가와의 시의 다카시나 공공도서관 분관에서 애플 서가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Niiyama, 2021). 지역 분관 도서관에서 일하게 된 사서가 도서관에 기부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장애인협회 및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스웨덴 MTM과 협력하여 애플 서가를 구축하고 관련 장서를 수집하여 서비스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가 구축을 통해 도서관에서 다양한 미디어로 변환하여 다양한 독서매체와 친숙하게 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도 장애에 관련한 다양한 장서를 경험해 보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비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종이책, 전자책과 음성도서 등을 특수학교도서관에서 구매하여,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특수학교도서관에서 장서구입 지원정책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책을 신속하게 대체자료로 제작해 주는 통로가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인데 개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책의 가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대체자료 제작비로 충당하여 장애인들도 원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큐레이션 된 장서 중에 매체만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각색이나 녹음, 자막 등의 저작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서를 발굴하여 신규 생산해야 한다. 읽기쉬운자료, 녹음도서, 촉각도서, 수어영상도서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출판사와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3.4 장애 아동·청소년 장서 접근성 강화

장애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장서는 일반장서이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일반장서와 대체장서를 통합하여 검색해 볼 수 있는 통합목록시스템은 미비하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대체자료 위주의 장서목록과 대체자료 종합목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일반 장서매체 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이 웹으로 접근하기 편리하게 일반 장서에 대한 통합 검색을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어린이 청소년 장서 목록을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어린이청소년 서지정보를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때 매체 유형만 대체자료 부분에 자료 형태 표기를 하여 일반장서와 대체장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장서와의 대체장서의 통합목록 서비스는 책나래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도서관을 이용하여 독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초기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체자료가 많지 않아 일반장서와 대체장서와의 통합목록은 어려울 수 있고, 특수학교도서관의 시스템도 미비하겠지만, 추후에는 특수학교, 대체자료종합목록,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통합목록을 자료유형과 소장처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자료와 대체자료가 동일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것은

제언한다.

3.5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독서동기, 읽기 동기란 읽고자 하는 마음, 읽기의 정서적 측면이며 즐거움과 자발적인 읽기로 평생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읽기 동기 촉진 방안은 초기에는 보상을 통하여 외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읽기 활동 속에서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독서지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체험, 북콘서트, 문학기행, 저자와의 만남 등의 활동적인 독서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국립장애인도서관, 2020c)에서 전문가 집단이 제안한 장애유형별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3.6 특수학교도서관 중심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특수학교는 각 장애유형별로 특화되어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도서관에서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독서 환경과 독서매체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진행을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특수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이나 장서, 예산 등은 부족하여 장애 학생들을 위한 독서기반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특수학교도서관을

〈표 11〉 장애유형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제안

<p>시각 장애 아동 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에겐 접자책에 연극 형태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등장인물별 다양한 성우 목소리를 통해 입체감있게 느낄 수 있는 그린 제작 환경조성이 독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지적 발달의 진행에 있어 비장애학생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지만 지적구조에서는 통합능력과 추상적 어휘 이해의 정도에서 지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상황인식이 어렵고 저시력 학생의 경우에 전맹 학생에 비해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부적응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 시각장애 학생의 독서방법은 전맹과 약시에 따라 다르지만 촉각도서, 점자도서, 녹음도서가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점역된 책의 내용과 수준이 편향되어 있어서 읽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하여 좋은 책을 읽도록 안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독서지도를 위해 준비된 독서환경, 수준에 맞는 도서개발 및 다양한 도서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점자도서관, 실로암 점자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음, 미국의 시각장애인 학교(Perkins School for the Blind)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통합 독서캠프와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코칭, 북콘서트, 책 만들기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p>청각 장애 아동 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장애인은 종이책과 수어자막 영상콘텐츠로 막연한 읽기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이해하는 즐거움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 학생에게 독서는 주위 세계와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청각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도서매체는 학습만화, 그림책, 수화영상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관련한 체험적 독서활동인 책 읽어주고 듣기 활동, 만화 일기 쓰기 등이 필요하다. • 수어영상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생애주기에 따라 교재와 강사 활용법을 달리하고 흥미와 참여도를 다르게 한다. 북 콘서트는 청각장애 소설가가 직접 수어로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개 콘서트를 한다. 대상자별로 적어도 6~8회 정도 교육 콘텐츠가 그들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p>발달 장애 아동 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은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발달이 느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커진다. 하지만 그림책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독서활동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독서흥미와 적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읽기쉬운도서가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북아트, 독서퀴즈, 독서골든벨, 독서감상화 그리기, 역할극 등의 체험형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과 더불어 낮은 자아개념 및 사회적 기술의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의 장서 선정과 관련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이 필요하다.

중심으로 한 장서, 독서문화프로그램, 인력 교육, 정책개발 등의 지원을 수행하여 독서진흥 정책을 마련해 간다면 장애 아동·청소년 학생들에게 그 효과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 단계로 특수학교의 자체적인 장서시스템과 특수학교 간의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며 나아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일반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결 론

도서관의 독서진흥 정책은 인지력 향상을 위한 학습 능력 성취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독서 문화향유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단계에서 독서환경 마련과 흥미로운 내용의 독서에 대한 경험은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의 기본능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안정을 가져옴과 동시에 정보격차

해소 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장서 선정과 매체 변환 그리고 독서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장서와 매체는 매우 한정적이며, 진행되고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도서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첫째, 장애 학생들의 물리적인 이동 및 안전의 고려 및 접근성의 용이성이 높은 특수학교 내의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장서와 매체 및 프로그램의 지원 확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서, 예산, 사서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장애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매체는 종이책 매체임을 감안하여, 일반장서를 기반으로 통합목록 및 추천자료 개발 등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대체자료 제작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

을 감안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제별, 상황별, 단계별 장서 선정은 매우 중요하므로 장서큐레이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체자료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체자료공유목록시스템을 특수학교도서관도 참여하여 연계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국립어린이청소년의 목록시스템과도 연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대체자료의 제작은 단순한 기증에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장애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서의 선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비장애인도 활용하는 전자책, 녹음도서 등의 표준화 포맷을 정책으로 마련하여 대체자료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특수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나아가 일반학교 특수학급까지 확장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21a). 특수교육 통계.
- 교육부 (2021b).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발달장애이용 쉬운 책 개발.
- 국립장애인도서관 (2019).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0a). 도서관장애인서비스 매뉴얼(개정판).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0b). 2020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0c). 2020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0d).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1). 장애 아동·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2014).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
- 김지민 (2014). 시각장애 특수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독서교육학회지, 2(1), 223-241.
- 손지영, 박현옥, 이정은 (2013). 지적장애 특수학교도서관 운영에 대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의 경험과 인식, 특수교육, 12(1), 181-206.
- 염지애, 김복동 (2016). 시각장애학교도서관의 운영실태 및 학생 인식 연구, 시각장애연구, 32(1), 41-66.
- 이정연 (2010). 유럽국가의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정책에 관한 질적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3), 147-168.
<https://doi.org/10.3743/KOSIM.2010.27.3.147>
- 장보성 (2019). 특수학교의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1), 313-331.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3.31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8637호.
- 천지연 (2017). 학교도서관의 장애학생을 위한 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461호.
- Kronkvist, B. (2014, August 18). Everyday Life of the Apple Shelf Public Libraries' Work With Accessible Media for Children. IFLA. Available:
https://www.ifla.org/wp-content/uploads/2019/05/assets/libraries-for-print-disabilities/presentations/everyday_life_of_the_apple_shelf.pdf
- Niiyama, J. [n.d.]. Newly established Apple Shelf, a library spac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DINF. Available: <https://www.dinf.ne.jp/doc/english/access/applesshelf.htm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No. 18461.
-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No. 18637.
- Chun, J. Y. (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School Libraries and Ways to Improve Disabilities.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Jang, B. S. (2019). Analysis on the operating status of special schools'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1), 313-331.
<https://doi.org/10.16981/kliss.50.201903.313>.
- Kim, J. M. (2014).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libraries of special schools for children with

-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the Reading Education*, 2(1), 223-241.
- Lee, J. Y. (2010).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brary services policy for the disabled person in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3), 147-168. <https://doi.org/10.3743/KOSIM.2010.27.3.147>
- Ministry of Education (2021a).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1b). *Special Education Annual Repor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13). *Developing Easy Book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14). *Management Guidelines for Application for Production of Alternative Materials*.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19). *Public Library Disabled Reading Culture Program Operation Case Book*.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0a). *Library Disabled Service Manual (Revised version)*.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0b).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Annual Report*.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0c). *Survey on Reading Activities for the Disabled*.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0d). *Public Library Disabled Reading Culture Program Operation Case Book*.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1). *Basic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Programs to Strengthen the Reading Abi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 Son, J. Y., Park, H. O., & Lee, J. E. (2013).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n school library service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2(1), 181-206.
- Yeom, J. A. & Kim, D. B. (2016). A study on the operation condition and students perception of libraries in the schools for the visual impairments. *The Korean Journal Visual Impairment*, 32(1), 41-66.

